

연세의 미래, 국경을 넘어 세계로

기.획.의.도.

지난 5월 16일 발표된 '2014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교는 ▲외국인 교원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과건 교환학생 비율 ▲유치 교환학생 비율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화지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9월 16일 발표된 '2014 QS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우리대학교는 국제화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국제화 지표가 종합 100위 진입의 걸림돌로 지적된 바 있다. <관련기사 1737호 2면 'QS 세계대학평가 106위, 8계단 올라'> 각종 대학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대학교가 국제화 지표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 함이 여실 없이 드러났다. 현재 우리대학교는 ▲국제점 활성화 ▲국제점 융합학과 ▲글로벌 특성학과 운영 ▲교환학생 제도 확대 ▲글로벌 인재학부 신설 등 '글로벌 연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우리대학교가 글로벌 연세를 이루기 위해 실천 중인 여러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현황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세, 세계의 지평을 열다

글로벌 연세에게... 교환학생 제도란?

우리대학교 국제처가 규정하는 교환학생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이 "외국 대학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강의 듣고 교류함으로써 사고의 폭과 인적교류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환학생은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선발되며, 지난 10월 24일, 2015학년도 2학기 교환·방문 학생 신청이 마감됐다. 우리대학교와 학생교환 협정이 체결된 외국 대학은 2013년 기준으로 총 61개국 800여 개이며, 매 학기 상대 학교의 상황에 따라 파견 가능 대학이 달라진다. 이미 배정이 완료된 2015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파견 가능 대학은 신촌캠프 ▲미국·캐나다 ▲유럽 ▲아시아·오세아니아 총 28개국의 165개, 원주캠프는 10개국의 15개 대학이다. 신촌캠프와 원주캠프 교환학생은 교차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류 대학은 더 다양한

셈이다. 우리대학교 교환학생 제도는 같은 학기 서울대의 파견 가능한 대학이 90개, 고려대 114개인 것을 고려하면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선발 과정에서의 점수 비공개 ▲국제처 직원 부족 ▲지원을 불균형 등 교환학생 파견 전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환학생 제도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공개 면접 점수

먼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환학생 선발 과정에서 진행되는 영어권·비영어권 면접의 심사 기준 및 점수가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교환학생 배은희(경외·12)씨는 "면접 점수를 알아야 최종 점수를 알

수 있는데 내 위치에 대해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며 "특히 파견 대학 지방서를 쓸 때 내 점수와 학교 커트라인을 고려해야 정확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 답답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교환학생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이 '면접 전 점수'를 가지고 서로의 점수 및 지방 대학을 가늠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제처 관계자는 "학점, 토플과 달리 면접 점수는 평가위원의 개별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기에, 점수 공개 시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들의 불편함이 있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면접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현진(글로벌행정·13)씨는 "지망한 학교에 탈락하더라도 왜 탈락했는지 점수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환학생 700명에 직원은 단 세 명?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학교가 정해진 이후 상대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기 전까지 학생과 상대 대학 간의 모든 연락과 서류는 원칙상 우리대학교 국제처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어려움 또한 국제처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처에 직원이 너무 적어 불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신촌캠프 국제처에서 교환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미국 ▲유럽 ▲아시아·오세아니아·캐나다 각각 1명씩으로 총 3명이고 원주캠프 국제교육원 또한 교환학생 담당 직원은 3명이다. 이는 매년 700여 명의 교환학생이 파견되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부족한 수다. 최연수(교육·13)씨는 "2015학년도 파견이 결

정돼 입학허가서, 비자 등의 중요한 서류들을 국제처에서 상대 학교에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며 "일일이 신경 써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교환학생은 많고 직원은 적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제처 직원이 적기 때문에 외국 대학으로 파견된 후 현지에서도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공부 중인 교환학생 김은지(언홍영·11)씨는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을 개인 사정으로 못 갔는데, 이후에 아무런 정보를 못 들어서 기숙사 신청도 못할 뻔 했다"고 당황을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이번에 파견 온 사람들의 경우는 학기가 시작하고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이 문제는 현지 학교 측 책임이 크기도 하지만 우리대학교 국제처도 충분한 직원을 확보해 학생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력 문제에 대해 국제처 관계자는 "학생 한 명의 파견을 위해 국제처 담당자는 이메일, 서신, 전화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대 대학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출국 후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 우리대학교로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제처에서 해당 문제를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지"며, 그 외의 경우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즉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처 직원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의 수는 학교의 재정적인 상황과 늘 맞물려 있다"며 "현재 부족한 인원으로도 최선을 다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 행정적인 업무 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는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해 개선할 것"이라 전했다.

영어권 대학 쏠림 현상, 해결 방법은 없나

한편, 영어권 대학과 비영어권에 대한 지원을 불균형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학생들의 선호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러한 지원 쏠림 현상으로 영어권에서는 경쟁에서 밀려 교환학생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비영어권 대학에는 오히려 TO가 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2015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예정인 오지현(언홍영·13)씨는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려는 목적이 있어서인지 미국이나 영국 쪽 대학으로 많이 살펴보는 것 같다"며 "아시아권 대학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편"이라 말했다. 이창현(국제관계·10)씨 또한 "영어를 가장 많이 접하기도 했고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영어권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학년도 2학기 파견 TO는 486명이었다. 하지만 대학배정을 받은 학생은 375명에 불과했고, 2015학년도 1학기 파견 TO 역시 전체 TO 521명 중 354명만이 배정받았다. 국제처 관계자는 "단순히 영어권 국가를 목표로 교환학생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 매 학기 지역적 매력도는 낮으나 높은 세계 랭킹의 학교들의 TO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우수 대학 정보를 지속해서 홍보하고 대륙별 추천 대학을 선정해 안내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현재 1회만 시행하는 추가모집을 2~3차례 늘려 TO의 낭비를 최소

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외에도 국제처는 파견지역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신흥국 해외파견 교환학생 장학금 제도를 신설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TO가 넘는 학교에 파견될 가능성 확대 등의 노력을 타진하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매년 약 700여 명의 학생을 해외 대학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교환학생 제도를 향한 학생들의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처에 따르면 이번 2015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면접시험 신청자는 지난 2014학년도 동기 대비 약 33%가 증가했다. 지난 2014학년도 1학기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김혜린(심리·11)씨는 "우리대학교 교환학생 제도는 교류 대학이 많고 경험보고서 시스템이 활발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고 굉장히 만족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속의 크고 작은 불만과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세계적 연세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처 관계자는 "교환학생제도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학생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해외 교환대학에서 파견된 외국인 학생 유입으로 우리 캠퍼스에 있는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국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지역으로 파견돼 교환학생 제도가 글로벌 연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그 기대를 전했다.

이하은 기자
godsgrace@yonsei.ac.kr



‘국제화’지수를 높인 8할은 영어강의?

평가기관과 언론사들의 서열화된 대학 평가로 인해 대학들이 대외적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요즘 대학평가에서는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교육의 양적 성장을 평가하는 '국제화'지수가 빠질 수 없는 평가항목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는 지난 2005학년도 '연세비전 2020'에서, 국제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200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영어강의의 비율을 약 15.7%에서 35%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처럼 우리대학교는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영어강의를 늘리는 데 힘을 쏟아왔다. 현재 우리대학교 전체 강의 중 영어강의의 총비율은 38%로, 신촌캠프와 원주캠프는 각각 1천여 개, 100여 개의 영어강의가 개설돼 있다.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따르면 우리대학교는 '국제화'지수에서 50점 만점에 33.69점을 득점해 10위를 차지했지만 국제화의 세부지수인 '영어강화 비율'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득점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리대학교 영어강의에 대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영어강의 ▲교수 자원에 의해 변경된 성적평가방식 ▲전공필수 중 영어강의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낮은 이해도와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말만’ 영어강의, ‘말은’ 한국어강의?

대학들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대학교에도 갑작스럽게 영어강의가 증설되면서 일부 교수와 학생은 영어강의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대학교의 교원업무평가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르면, 신입교수는 임용된 후 최초 재임용 심사를 받기 전까지 6강좌의 영어강의(해당 전공의 어학 강의 포함)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가 영어강의를 진행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재임용을 위해 무리하게 영어강의를 개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촌캠프 교무처장 정인권 교수(생명대·바이러스학)는 "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입교수들에게는 임용된 지 3년 이내에 영어강의를 하는 게 의무"라며 "하지만 학문의 성격상 혹은 교수의 영어 전달력 부족으로 인해 영어강의가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면 영어강의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아무개(치의학·12)씨는 "선택교양 영어강의에서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더듬거리거나 한국어를 사용하면 신 경우가 많아 수강하기에 불편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어강의로 개설됐지만, 강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한국어를 병행하는 수업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대해 원주캠프 교무처장 하은호 교수(과기대·시계열분석)는 "학교 내부 규정상 영어강의는 강의의 약 75%를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교 측에서는 교수자 영어강의 개설 신청을 하고 강의 계획서를 제출한 이상, 모든 수업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만약 영어능력이 떨어지거나 한국어를 병행하는 교수가 있다면 강의평가를 토대로 한 교수와 학생 간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학교가 교수의 영어전달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 신입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병행하는 영어강의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영어강의의 성적평가

현재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들의 영어강의 수강을 독려하기 위해 영어강의에 대해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대학교도 영어강의를 확대하던 지난 2004학년도부터 당시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절대평

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일부 교수는 영어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로 학점을 매기고 있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우리대학교 영어강의의 성적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라며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영어강의는 학교 시스템 상 영어강의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몇몇 학과에서는 일부 전공강의가 영어강의임에도 성적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우리대학교 연세포탈 사이트의 '학부/대학원 수강편람조회'를 살펴보면, 일부 영어전공강의들은 영어강의로 공지돼 있다. 이아무개(경제·14)씨는 "강의계획서 어디에도 절대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공지가 없었던 전공 영어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첫 수업 OT시간에 성적은 상대평가로 매길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교수의 자율로 상대평가의 기준을 세운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아무개씨는 "타과생인 이공 계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성적을 주는 반면 왜 경제전공 학생들에게는 상대평가로 성적을 평가하는지, 이렇게 학과에 따라 성적평가 방식을 다르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졸업 막는 영어전공강의

일부 학과에서는 전공필수과목이 영어강의 위주로 개설돼 해당 과목에 대한 별도의 한국어강의가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대학교의 영어강의 중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필수 및 전공 기초의 비율은 약 15.8%다 (UIC 제외). 윤승환(수학·07)씨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전공강의의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강의를 듣는 것은 더 어려웠다"며 "모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세세한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사실상 영어전공강의는 독학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어강의로만 개설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김아무개(전기전자·06)씨는 "전공필수과목이 대부분 영어강의로 열려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며 "학생들이 전공필수과목을 쉽게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측은 굳이 전공필수과목에 대해 영어강의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우리대학교는 글로벌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이므로 학생들도 불만을 호소하지만 말고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일상적인 영어 사용으로 진정한 글로벌리더로 거듭날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어강의, 양보다 질을 따져볼 시점

한편 우리대학교가 영어강의를 늘리는 이유 중 하나가 대학평가와 글로벌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한일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가순위를 올리기에 연연했던 여러 해 전, 우리대학교 평가순위를 올리기 위해 '연세비전 2020'에서 선포한 내용을 토대로 영어강의를 증설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영어강의의 증설은 학생들의 불만을 포함해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 하교수는 "그 때의 부작용을 디딤돌로 삼고 학생과의 피드백을 통해 점차 개선해나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는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수 역시 "평가순위보다는 진정한 교육과 영어강의의 내실화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일, '중앙일보'에서는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아래 중앙대학평가)'를 발표했으며, 위의 평가 순위와 평가 점수는 중앙대학평가를 토대로 한 수치다.

강대연 기자
smallbaby@yonsei.ac.kr